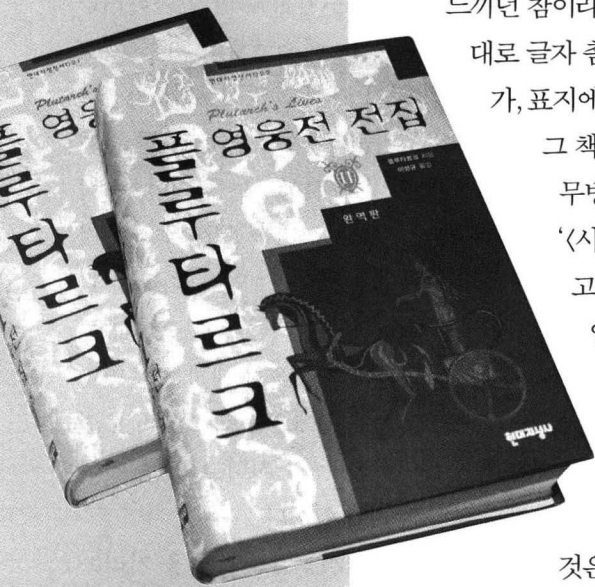


《플루타르크 영웅전 전집》(전2권)

‘작은 책’의 유혹과 배반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플루타르크 영웅전 전집(전2권)
플루타르크 지음 | 이성규 옮김 |
현대지성사 | 각 936, 1959쪽 |
값 각 24,000, 26,000원

우리가 어떤 책을 구입하기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물론 그 책의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책의 물성(物性)이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판본이 있고, 그 내용상의 우열을 알기 어려울 때에 그러기 쉽겠다. 오늘은 내가 낭패한 얘기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번역본을 갖춰둬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 도서관에서 두 권으로 묶인 전집을 발견했다. 다른 출판사의 것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에 부담을 느끼던 참이라 얼른 손이 갔다. 어차피 두 가지 다 중역(重譯)이니, 내가 평소 좋아하던 대로 글자 촘촘하고 전체 부피 적은 쪽을 택하지는 심산이었다. 책이 꽤 두꺼운 데다가, 표지에 ‘완역판’ 이라고 쓰여 있어서 초역(抄譯)은 아니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 책이 어떤지, 맨 앞부분의 <테세우스>편을 보자.

무방비 상태의 나를 처음 경악케 했던 것은 헤시오도스의 작품 제목이다. ‘<사업과 시대>’ (34쪽)! 이것은 보통 <일들과 날들>(Works and Days)이라고 부르는 작품으로, 앞부분에서는 주로 농사법을, 뒷부분에서는 주로 길일(吉日)과 흉일(凶日)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 ‘농사법과 택일법’ 이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로, 때로는 우습게, 때로는 황당하게 제목들을 지어내는데, 여기서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제목을 만난 것이다. 기가 막히기는 ‘호메로스의 <지옥행>’ (44쪽)도 그 못지않다. 이것은 <오뒷세이아> 11권에서 오뒷세우스가 저승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저승여행’ 이나 ‘저승담(譚)’ 정도가 될 것이다.

고유명사 표기들도 놀라운데, 제일 앞줄의 것은 ‘에리피테스’ (34쪽)다. 보통 ‘에우리피테스’ 라고 적는 희랍의 비극작가다. 계속 나아가며 보니 이 번역의 고유명사 표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다. ‘이스트모스’ 라 불리는 지협(地峽)은 ‘이스트로스’ (37쪽)로, ‘크롬미온’ 이라는 지명은 ‘코롬미온’ (37쪽), ‘테트라폴리스’ 는 ‘테라폴리스’ (40쪽), ‘혹해’ (Euxine)는 ‘에우쿠시네 해’ (48쪽), ‘헤로도로스’ 는 ‘헤로도토스’ (51쪽)로 되어 있는 식이다.

그래도 이것들은 오식(誤植)의 범위에 드는 실수이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더 큰 문제는 이 책이, 고유명사가 나오면 그 부분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집을 두 권으로 만들어내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지역과 도시의 이름들, 달의 이름들(희랍은 도시국가마다 다른 달력을 썼기 때문에 달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축제 이름, 신들의 별칭, 옛 저자의 이름 등 중요한 정보가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내용이 엉뚱하게 옮겨진 부분도 적지 않은데, 가령 다음 구절을 보자(번역 원문은 J. Dryden이 옮기고, A. H. Clough가 개정한 판본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http://whitewolf.newcastle.edu.au/words/authors/P/Plutarch/prose/plutachslives/theseus.html>).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테세우스가 ‘소나무 사나이’ 시니스를 제거하는 장면이다. “테세우스는 시니스처럼 거목을 휘게 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진정한 용기가 하찮은 재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7쪽). 하지만 보통 알려지기로, 항상 상대가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대항하는 것이 장기였던 테세우스는 이 강도 역시 소나무를 휘어서 날려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원문을 보니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나온다(he slew Sinnis, ... after the same manner). 원문 내용을 줄다가 잘못되었던 것이다.

테세우스가 마라톤의 황소와 싸우러 갔을 때 헤칼레라는 노파가 그를 접대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 여인은 나중에 아테나이에서 제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고는 이렇다. “이 제사는 또 ‘헤칼레네’라고도 부르는데, 그가 테세우스를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어 테세우스가 흔히 사용하던 애칭이다” (40쪽). 하지만 원문을 보니 ‘헤칼레네’는 제사 이름이 아니라 노파를 부르는 칭호며, 또 먼저 애정 어린 칭호(指小詞)를 사용했던 것도 테세우스가 아니라 노파였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를 비슷한 칭호로 부르게 된 것이다(to pay honor to Hecale, whom, by a diminutive name, they called Hecalene, because she ... addressed him, as old people do, with similar endearing diminutives).

테세우스의 모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소머리에 사람 몸뚱이인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것인데, 플루타르코스는 이 전설의 합리적인 판본을 소개한다. 괴물이 아니라 타우로스라는 이름의 냉혹한 인물이 있었으며, 크레테로 보내진 젊은이들은 노예가 되었다는 판본이다. 이들에 대한 보고는 이렇다. “크레타로 간 소년 소녀들은 ... 이탈리아로 옮겨 갔다. 그리고 크레타의 처녀들은 아테네를 위로 하기 위해 ‘가세, 가세, 다 같이 아테네로!’ 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41쪽). 하지만 원문을 보니 이주한 것은 그 젊은이들의 후손이고, 이탈리아가 최종 정착지도 아니며, 또 노래를 부른 것은 크레테 처녀들이 아니라 보이오티아 처녀들이다(some descendants of these Athenian slaves ... removed from thence, first into Italy, ... ; from thence again, that they removed to Thrace, ... the Bottiæ as girls sing a hymn beginning Let us go to Athens.).

“테세우스가 이아손과 콜키스에 가서 칼리도니아의 멧돼지를 죽이는 일에 협력” (51쪽)했다는 보고 역시 실소를 자아낸다. 칼리돈의 멧돼지를 왜 콜키스까지 가서 죽이는지. 콜키스는 흑해 동쪽의 도시로서, 아르고 호의 영

웅들이 황금양털가죽을 얻기 위해 갔던 곳이고, 유명한 칼리돈 멧돼지 사냥은 희랍 반도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뒤섞여버린 것이다.

테세우스가 테바이 전쟁에 개입했던 얘기도 유명하다. “테세우스가 테베 지방에 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시체를 찾아 장사지내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휴전을 한 뒤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51쪽). 하지만 이 번역에는 테바이 전쟁의 주역인 아드라스토스라는 인물의 이름도 빠져 있고, 테세우스가 무력 아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도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He also joined Adrastus in recovering the bodies of those that were slain before Thebes, but not ... by force of arms, but by persuasion and mutual agreement and composition).

이 책은 인물들 간의 관계도 임의로 바꾸고 있는데, 가령 “시니스와 그의 아내 케르키온” (50쪽) 같은 구절이다. 시니스와 케르키온은 모두 테세우스에 의해 제거되는 남자 악당들인데, 케르키온은 성(性)도 바뀌고 엉뚱한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테세우스의 어머니인 아이트라도 엉뚱한 혈통을 얻게 되는데, 이런 식이다. “피테우스와 클리메네의 딸/ 동그란 눈의 아이트라” (55쪽). 이 구절은 <일리아스> 3권에서 인용한 것으로, 원래는 ‘핏테우스의 딸 아이트라와, 황소 눈의 클뤼메네’가 될 것인데, 영어 문장(Aethra of Pitheus bom, and large-eyed Clymene)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그만 이리 되고 말았다.

이 책은 번역 원문을 좇아, 그리고 중역들이 자주 그러 하듯, 장절 구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중간의 어떤 부분을 마음대로 빼버리기에 아주 적당한 장치이다. 중간에 조금씩 빼버린 것은 거의 당연한 일이고, 17장 5절과 6절은 아예 절을 통째로 없애버렸다. 고전시대의 문헌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행수나 장절을 표시하지 않은 책들을 조심하시기 바란다.

한데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이 책의 잘못을 ‘입증’ 하려 하는 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앙심’ 때문만은 아니다. 나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근래에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내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권짜리 전집을 남 주어버리고 이 새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남 줬다는 전집이 얼마나 더 나은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이 무슨 바보짓인가! 겉표지에 ‘완역본’이란 말만 없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때때로 축약본, 초역본도 필요하다. 문제는 진실성이다. 나의, 그리고 내 학생의 그 두꺼운 책 두 권을 어찌 할 것인가? 